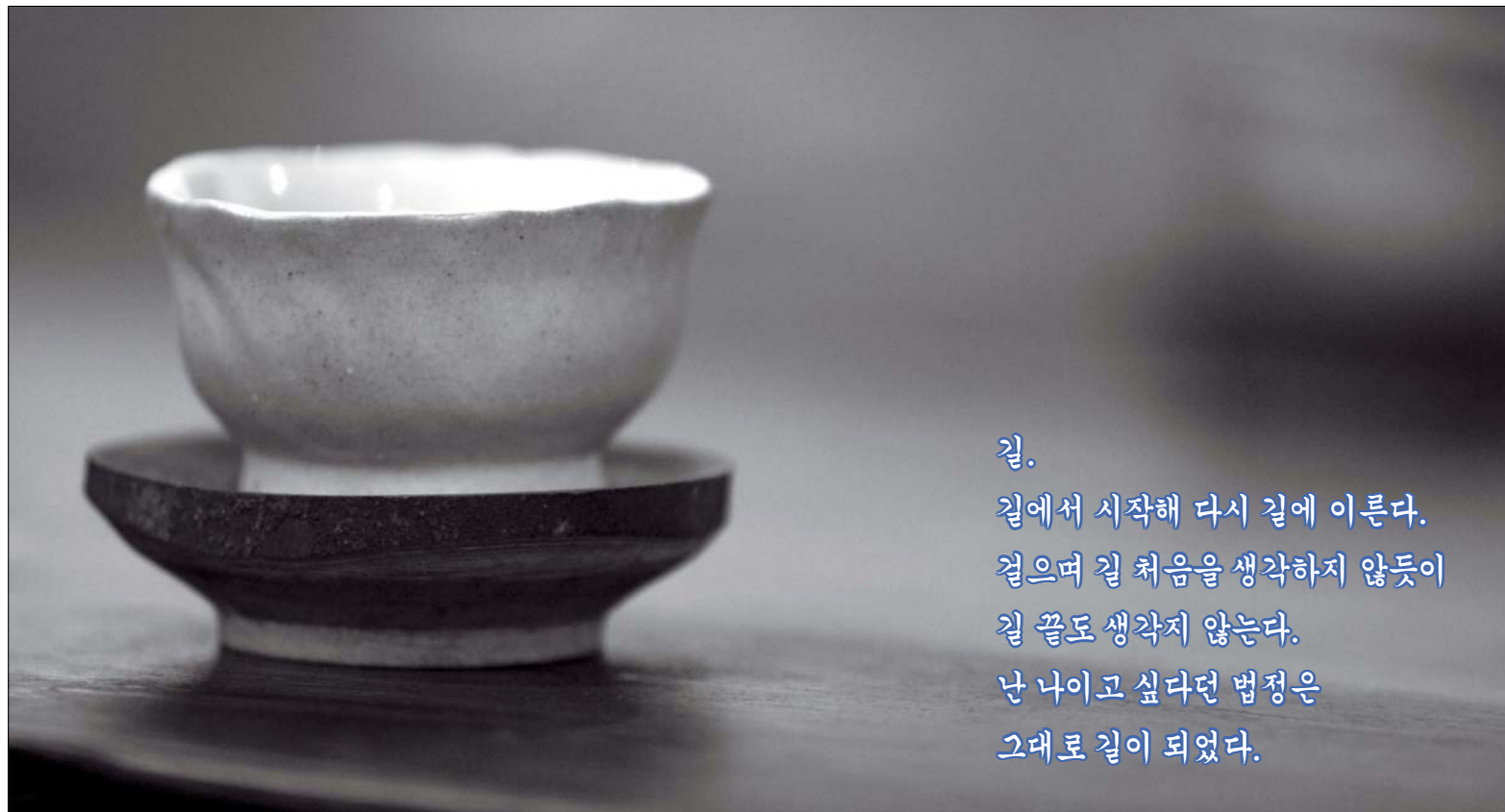


“절대미감 갖춘 분이셨어요”



길.
길에서 시작해 다시 길에 이른다.
걸으며 길 처음을 생각하지 않듯이
길 끝도 생각지 않는다.
난 나이고 싶었던 범정은
그대로 길이 되었다.

완공했는데 마침 완공한 날 스님이 오셨어요. 집을 둘러보고는 세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서까래 끝에 못을 박아서 풍경을 달았는데 ‘못 끝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는 ‘현관에 섬돌을 놓고, 뒤 곁에 바삭 붙은 나무들을 쳐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과연 스님 말씀대로 못 끝을 가리고, 섬돌도 놓고, 뒤 곁에 나무를 쳐내 깔끔히 정리하고 나니 집이 안은해지더군요. 그게 좋았어요? 절대미감을 갖춘 분이셨어요.

우켜 주셨다. 그래, 바람은 저 혼자 바람일 수 없다. 움직이면 바람이다. 소리 또한 그와 같아서, 나 아닌 다른 무엇에 부딪치고 너와 내가 비벼대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소리가 된다.

본자연: 스님 글을 보거나, 밥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걸 스님도 같이 느끼시고, 내가 좋아하는 곡을 스님도 참 좋아하시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한테 책이나 음악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저희 또한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면 스님께 알려드렸어요. 한 번은 켈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전기 (나의 기쁨과 슬픔, 파블로 카잘스)를 소개해 드렸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글로 쓰셨더라고요. 그 뒤에 ‘내가 사할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이란 켈렌 켈러 수필을 보내드

지란지교(芝蘭之交, 맑고도 고귀한 사귀를 이르는 말)라던가?

본자연: 이 양반은(지현 선생을 가리키며) 그전에는 거의 길상사(길상사) 가지 않았어요. 저만 스님 법회 때 갔었죠. 그러다가 편찮으실 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스님이 길상사에 오실 때는 부부가 함께 갔어요. 스님이 돌아가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셨을까?’ 묻고 또 물어아하지 않을까요.

-법정 스님 입적 뒤 지현 김기철 선생 부부 길상사 나들이가 부쩍 잦아졌다. 저녁노을이 장엄하게 지는 서산을 바라보는 세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이야! 멋지다. 사진 찍어야지.”하며 감탄을 한다. 이 사람은 사물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지금 해가 지는구나. 그런데 해가 왜 지지? 붉은 노을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하곤 고개를 갸웃거린다. 눈과 머리로 보는 사람이다.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벌리고 서있다. 이 사람은 지는 해와 내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너무 박차서 그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바라보는 대상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 우주에는 에너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 건축가 승효상은 나무에 결이 있고 바람이나 물에 결이 있듯이 땅에도 결(地紋)이 있다고 했다. 하물며 사람에게 결이 없겠는가. 사람 결은 뭘까? 목숨을 주고받으며 만드는 숨결이다.

노을이 진다. 나무와 바람과 물에도 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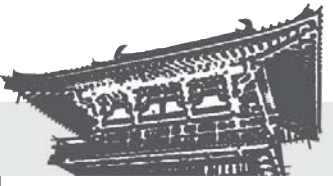
사람결은 뭘까? 목숨을 주고받으며 만드는 숨결이다

-흠이 자신自身을 살라 자기磁器로 나뭇듯이, 흠이 좋아 흠에든 지현선생 삶을 투영한 글이 법정 스님 손을 거쳐 세상에 고개를 내밀어 고고성呱呱聲을 울렸다.

지현: 스님이 오시면 늘 그 동안 쓴 글을 보자고 하셨어요. 집사람이 그걸 조금조금 읽으면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시곤 했죠. 제가 환갑 때 스님이 “김선생, 이제 그만큰 했으면 수필집을 하나 묶는 게 어떻겠어요?” 하시더군요. 어이쿠, 무슨 말씀이냐며 손사래를 쳤죠. 그런데 스님이 원고들치를 가져다가 썬서사에 주셨어요. 그 바람에 <꽃은 흠에서 핀다>가 출간됐어요.(1993) 스님이 그렇게 버텨하고 구차한 소리를 하신 건 아마 전에 없던 일이 아닐까 싶어요.

렸더니 신문 칼럼에 쓰셨어요. 스님한테 책을 보내드리면 좋은 책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구나 싶어 켈렌 니어링이 쓴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도 보내드렸죠. 또 김종철씨가 펴낸 환경잡지 <녹색평론>은 창간 전에 우전 신호열선생한테 소개를 받아 창간호부터 추천해드렸더니, 스님이 말씀하실 때 많이 참고하셨어요.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특히 좋아하셨지요.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는 스님이 법문하시면서 꼭 한 번 읽고 보라고 권하셨던 책으로 나그네도 그 책을 읽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8

진언밀교의 조사 쿠카이(空海)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순례문화 전통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하나가 1400여 km의 시코쿠(四國) 88개소 영장순례이다. 연간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이 순례는 시코쿠 섬 일대에 산재한 흥법대사 쿠카이(空海, 774-835)와 관련된 사찰을 수 십일을 걸어서 도는 것이다. 전설에는 시코쿠가 고향인 쿠카이가 42세의 액년(厄年)에 이 사람들을 개창했다고 전해진다. 문명에 지진 현대인들이 이 순례를 통해 신앙의 숭고한 세계에 몰입, 자신과 세상을 잊음으로써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만끽하고 새로운 현실로 돌아온다. 때로는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 순례를 통해 심신을 치유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러한 생활종교 형태의 모습들은 민중신앙의 한 형태인 대사신앙, 즉 쿠카이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믿음은 고야산(高野山)에서 주석하고 열반한 쿠카이가 중국에서 배워 온 토목사업과 교육교화 활동이 민중들에게 널리 이익을 가져다 준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신은 진언밀교가 전하는 신비성과 대중성, 보편 종합성에서 발현됐다. 밀교의 비의(秘儀)를 통해 모든 사상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며, 개유불성과 즉신성불의 교학적 권위 위에 구체종교로서의 대승정신을 확립한 쿠카이에 대한 신앙이 대중적 순례문화로 증폭된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에도 쿠카이가 입정상태에서 고야산에 생존한다고 믿고 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고야산 순례길은 이러한 쿠카이를 찾아나서는 길이기도 하다.

고대 전반기 국가의 통제 아래 제종을 연구하는 학단을 형성했던 진통이 후반기로 내려오면서 종합 불교의 성격은 전 태와 밀교가 등장한다. 전자는 사이초(叡祖), 후자는 쿠카이에 의해서였다. 쿠카이는 18살 때, 대학에 들어가 중국의 여러 학문을 공부하다가 불교에 뜻을 두어 퇴학했다. 나라(奈良)의 여러 대사찰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24세 때에 유·불·도의 우열을 논한 <삼교지귀(三教指歸)>를 저술했다. 그 후 <대일경>을 보고 밀교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31세 때인 804년에는, 이 때만해도 아직은 면식이 없었던 사이초와 더불어 견당선을 타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의 여러 사원에서 가르침을 받고, 불공(不空), 선무외(善無畏), 현초(玄超)의 법맥을 이은 청통사의 혜과(惠果)로부터 진언밀교를 전수받았다. 그리고 경론, 만다라, 법구 등을 구해 2년 만에 귀국했다. 왕실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나라 동대사에 밀교 의식을 행하는 관장도량을 만들고, 고야산에 진언종 총본산인 린고부지(金剛峰寺)를 건립했다. 더불어 교토에 토지(東寺)를 부여받아 진언밀교 전문도량으로 만들었다. 그는 여기에 서민을 위한 최초의 종합

교육학교인 종예종지원(綜藝種智院)을 세웠다.

쿠카이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 중 <비밀만다라 십주심론(秘密曼荼羅十住心論)> 10권과 이의 요약본인 <비장보약(秘藏寶鑰)> 3권은 보살심 발현의 과정을 인간 성장 단계와 비교해 10종의 단계로 분류한 뒤, 각 종을 단계별로 두고 최상위에 밀교가 위치하고 있음을 설한 종합교리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인간의 마음을 최저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10단계로 나눴다. 이를 단계별로 세간의 3가지 주심(住心), 소승의 2승(乘) 주심, 대승의 법상, 삼론, 천태, 화엄의 주심, 마지막 10심으로는 진언종의 비밀장엄의 주심으로 배치해 앞의 9심은 현교로 마지막 10심은 밀교로 교상판석한 것에 의해 밀교우위를 주장했다. 이러한 쿠카이의 근본사상은 <변환밀이교론(變顯密二教論)>, <즉신성불의(即身成佛義)>, <성자실상의(聖字實相義)> 등을 통해 즉신성불사상으로 통괄했고, 진언종의 교학체제 확립에 이르렀다.

쿠카이의 사후 진언종은 밀교 수행 작업인 사상(事相)과 교의적인 면인 교상(敎相)의 각파로 나뉘어 발전했다. 위로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하고, 아래로는 민중의 운명을 의탁 받는 수술적인 면으로 확산돼 갔다.

무엇보다 쿠카이의 정신은 우리들 중생심의 청정심에서 드러난 부처의 지혜와 덕을 통한 무한한 신통력을 삶 속에서 발휘하는 데 있다. 이러한 세계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쿠카이는 “신농씨는 아픈 이를 불쌍히 여겨 초목의 맛을 보고 약초를 만들었다. 주공 단(桓)은 방향을 모르는 자에게 지남침을 만들어 가르쳤다. 미혹의 세계에서 미친 사람은 미친 것을 모른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자와도 같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태어남을 반복해 생의 처음이 어둡고, 죽을 또한 거듭돼 죽음의 끝도 어둡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실한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말·사상·행동은 모두 해매임이며 유희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자신의 현실과 삶이 그렇지 않을까.

고야산 시코쿠 순례길의 주인공 “실상 이해하지 못한 삶은 해매임”



고야산 진언종의 총본산인 린고부지의 주전(主殿)

원영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달수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